

Fashion Illustration의 표현양식에 대한 고찰*

— 1910~1990년대를 중심으로 —

이 주 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환경학과

A Study on Modes of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s between the 1910s and the 1990s

Joohyeon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ersity

(1996. 9. 1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 in modes of expression represented in fashion illustrations between the 1910s and the 1990s. 639 fashion illustrations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and by qualitative analysis in five aspects. Typical traits in the modes of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s in each period were described. The outstanding transformation in modes of expression from "before '70s" to "after '70s" were confirmed. The findings support two hypothesis: that modes of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s evolve and that changing modes of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s is a reflection of "spirit of the times".

I. 서 론

Fashion Illustration(이하 F.I.라 약칭하기로 함)이란, 의상 또는 의상에 관한 계획을 스케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F.I.는 단순한 사실적 그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과장(exaggeration)과 같은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하여 주어진 패션 메세지(fashion message)를 강조하여 전달하는 데에 그 생명¹⁾이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F.I.에서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양식보다는,

그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변형을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표현양식이 사용되고 있다²⁾.

한편 F.I.의 표현양식의 일부인 이상적 fashion body의 변천을 연구한 Danielson³⁾은, fashion body의 이상형은 각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 변모한다고 하여, F.I. 표현양식은 고정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F.I.의 표현양식이 극도로 다양해진 것은, 현대 패션산업의 발달에 따라 F.I.의 용도가 급격히 다양해지고 확대되어 온것에 기인한다⁴⁾. 그 예를 들면 F.I.는 과거의 용도였던 디자인의 아이디어 스

*본 논문은 1995년도 연세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캐치, 도해화, 예술작품 등 외에도, 최근에는 패션정보사의 트렌드 예시, 의류 산업체의 이미지 광고 용도등에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F.I. 표현양식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분석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F.I.의 표현양식 변화와 표현양식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1910-1990년대의 F.I.의 표현양식의 변화상을 심층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F.I.가 미래에 전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F.I.의 표현 양식을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F.I.의 이론적 정립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자 설정한 구체적 연구목표는, ① F.I.의 표현 양식의 유형을 분류하며 ② F.I.의 표현 양식의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고찰하고 ③ 시대적 배경이 F.I.의 표현양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④ 미래의 F.I.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의 고찰

1. Fashion Illustration의 역사

고대 이집트시대 이래, 인간은 벽화 등의 그림을 통해 과거시대의 의복의 형태를 짐작해 왔다. 16세기에 이르러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의복의 형태, 색채, detail 등을 묘사한 fashion plate도 더욱 많이 창출되었으나, 이 시기까지의 fashion plate들은 F.I.라기보다는 의복에 관련된 당대의 사회적 관습을 표현한 것으로서 간주되었다^{2,5)}.

1) Fashion Plate 시대(17~18세기)⁵⁾

인류 역사에 있어 첫번째 F.I.라 할 수 있는 것은 1640년대, 런던의 작가 W. Hollar가 그린 동판화였으며, 이 F.I.에서 Hollar는 의상의 세부와 texture 등을 세밀히 표현하였다. 인쇄기술의 발명에 이어 당시의 신문 Le Mecure Galant에는 왕실의 지원하에 패션 전문 기사란이 설치되었다. 그 후 신문, 잡지에 fashion plate를 실는 경향은 유럽 각지로 전파되었으며, 이 행물들에 게재된 F.I.는 대부분 판화에 의한 것이었다.

2) Fashion 잡지 시대(19세기)^{2,6)}

19세기에는 석판화와 사진술의 발명, 인쇄술의 발달, 재봉틀의 발달로 인해 패션산업이 한층 빠른 속도로 발

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18세기에 간행되기 시작했던 각종 패션 잡지들은 크게 발전하였다. 이 패션 잡지들은 그 당시 도시뿐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던 일반대중과 중산층에게 최신 모드를 전달하였으며, 여기에 실렸던 F.I.는 사진, 동판, 석판에 의해 인쇄된 색채를 담고 있었다. 이 시기까지의 F.I.는 대중에게 최신 유행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혁명기(1910~1920년대)⁶⁾

20세기 초는 F.I.에 있어서 혁명기적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로부터 예술사조와 복식이 연관되었으며, 각종 예술사조는 F.I.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10~1920 년대의 F.I.는 디자인, 건축 분야와 마찬가지로 Art Nouveau 및 Art Deco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명랑하고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F.I.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 1 차 세계대전 후에는 입체파, 야수파, 다다이즘 등 다양한 예술사조가 패션 및 F.I.에 영향을 미쳤으며, 1920년대에 창간된 French Vogue지에는 Plank, Dryden, Dufy, Delaunay 등의 유명 화가들이 F.I.를 발표함으로써, F.I.는 기술의 차원에서 벗어나 예술적 차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그림 1], [그림 2] 참조).

4) 황금기(1930~1940년대)^{2,5)}

1930~40년대는 F.I.의 황금기라 불릴 수 있을 만



[그림 1] (Dryden, 1923)¹⁰⁾

[그림 2] (Simon, '20년대)¹⁰⁾

큼, 패션일러스트레이터(fashion illustrator)라는 직종이 본격적인 전문 직종으로 등장하였으며, 수많은 유명 F.I.작가들이 등장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F.I.는 주로 Haper's Bazaar, French Vogue, American Vogue 등에서 각종 패션상품 광고용으로 게재되었다 ([그림 3], [그림 4] 참조).

[그림 3] (Erickson, 1932)¹⁰⁾[그림 4] (Erickson, 1946)¹⁰⁾

5) 쇠퇴기(1950~1970년대)^{2,5,10)}

이 시기부터 재능있는 사진작가들이 등장함에 따라, 1940년대 이후 F.I.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도 개성있는 새로운 F.I.작가들이 꾸준히 출현하였으나

[그림 5] (Lopez, '60년대)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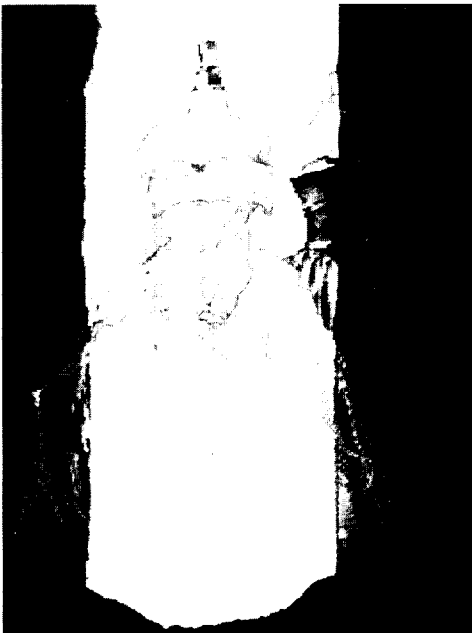
([그림 5] 참조), F.I.가 패션 잡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사진의 발달에 밀려 쇠퇴하였다. 이러한 F.I.의 쇠퇴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즉 1950년대 이전의 F.I.는 첫째, 예술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둘째, 대중보다는 소수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즉 1950년대 이후에는 영화, 사진술과 더불어 대중문화가 발달하였으므로, F.I.는 시대사조에 맞지 않았다고 하겠다.

6) 중흥기(1980~1990년대)²⁶⁾

1970년대에 이후 대중은 사진의 선명함에 싫증을 느끼고 피사물의 특징을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 재현하는 F.I.에 다시 흥미를 갖기 시작함에 따라, F.I.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F.I.는 패션의 새로운 조형적 전달 수단으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F.I.작가마다 미적 시각을 달리하여 F.I.에 표현된 인체는 다양하게 변형되기 시작하였으며, F.I.의 표현기법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그림 6], [그림 7], [그림 9]~[그림 14] 참조).

2. 가설의 도출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도출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Long, '80년대)²⁷⁾



[그림 7] (Jori, '80년대)²⁷⁾

<가설 1> 1910~1990년대의 F.I.의 표현 양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을 것이다.

<가설 2> 1910~1990년대의 F.I.의 표현양식은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표된 국내외의 F.I.작품 또는 F.I.작품의 인쇄물들로 제한하였다.

주된 연구 방법으로는 내용분석과 질적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내용 분석은 작품의 표현양식(표현양식의 스타일은 제외)을 분석하는 데에, 질적분석은 시대적 배경이 표현양식에 미친 영향, 표현양식의 스타일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의 과정과 방법은 내용분석 연구방법론⁶⁾을 F.I. 연구에 적합하도록 각색하여 <표 1>에서와 같이 적용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전집은 1910~1995년 사이에 출간된 패션 관련 서적^{5,7-14)}, 간행물^{15,16)} 등에 실린 F.I.들, 또는 전시회에 의해 소개된 F.I.작품들¹⁷⁾이며, 현실성을 고려하여 편의표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모든 분석 단위는 1개의 F.I. 작품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한 유목은, F.I.작품을 '누가(작

<표 1> 1910~1990 년대의 F.I.의 표현양식에 대한 분석 결과^{a,b)}

(단위: 개)

표현양식	발표년대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외현적 표현양식	인체사용	44	74	69	64	64	53	69	84
외현적 표현양식	표현매체	인체 사용 없음				2	3		4	4	
		인체/비인체의 혼합체 사용			3	2			7	19	
		페인팅	44	74	72	68	67	53	55	64	66
	표현기법	판화							1	9	4
		콜라주							13	22	20
		테크놀로지 아트									7
내현적 표현양식	인체변형 ^{a)}	중사실적 표현	33	41	39	41	37	26	34	29	31
		단순화	11	29	26	26	30	27	33	54	57
		과장	13	24	16	14	9	2	12	43	59
		기형화			1					12	8
	perspective	one-point perspective	44	74	72	68	67	50	54	71	65
		multi-perspective						3	15	24	32
	표현스타일 ^{b)}	아르누보운동	21	25	8	3					
		아르데코운동	19	38	17	1		2			
		후기인상주의		10	14	8	9	10	2	3	
		야수파표현주의		11	4	1	2	1	4	18	16
		낭만파표현주의			31	37	38	11		1	
		초현실주의			7	5				9	20
		팝아트						16	22	15	17
		다원주의						4	19	38	41
		애니메이션					11	7	18	22	19
		동양화	14	29	8	6	3	2	4	17	6
	기타	4	2	5	13	13	9	12	11	5	
	소계		44	74	72	68	67	53	69	95	97
	총계										636

a) 동일한 작품이 여러 항목에 중복되어 해당될 수 있음.

b) 빈 칸은 해당되는 F.I. 작품이 없음을 의미함.

가), '인체(작품 발표년도)', '어떻게(표현양식)'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연구문제와 가설에 접근하기 위하여 F.I.작품의 표현양식을 내현적 양식과 외현적 양

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론적 배경^{2,4~6)}을 토대로 하여, F.I.작품의 외현적 표현양식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는 표현매체와 표현기법을, 내현적 표현양식의 분석기

준으로는 인체변형(deformation), perspective, 표현의 스타일 등을 선정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F.I.작품의 외현적 표현양식과 내현적 표현양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은 <표 1>에 제시되었으며, 시대에 따른 F.I.의 표현양식의 유형 및 시대에 따른 변화상, 시대적 배경이 F.I.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 F.I. 작품의 외현적 표현양식

1) 표현매체

본 연구에 있어 표현매체란, F.I.의 주제인 의복을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는가를 의미한다. 표현매체를 기준으로 하여 작품의 표현양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F.I.는 인체를 매체로 한 양식[그림 4], 인체를 매체로 하지 않은 양식[그림 6], 인체와 비인체를 혼합하여 표현매체로 사용한 양식[그림 7]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1910년대 이래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은 인체를 매체로 한 표현양식이나, 80년대와 90년대에는 인체를 매체로 하지 않은 양식과 인체/비인체를 혼합하여 표현매체로 사용한 양식도 눈에 띄게 증가해 왔다.

인체/비인체의 혼합체를 표현매체로 사용하는 F.I.



[그림 8] (Dalí, '30년대)¹⁰⁾

작가 중, Jori⁷⁾[그림 7]은 인물과 동식물의 혼합체를 매체로 의복을 표현한 F.I.를 발표해 왔으며, Lelas⁷⁾는 인체와 새 또는 물고기의 혼합체를 표현매체로 사용한 F.I.를 선보여 왔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표현매체의 등장에는 초현실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란 '우리나 미학적 선입관념의 통제로부터의 전면적인 인간정신의 해방'을 추구하는 문학·예술의 전위 운동으로¹⁸⁾, 순수예술계 뿐 아니라 F.I. 및 사진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⁰⁾. 특히 초현실주의 화가 Dalí는 한때 미국판 보오그(Vogue)지에 자신의 F.I.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¹⁰⁾[그림 8], 여기에서 그가 Jori의 F.I.작품[그림 7]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2) 표현기법

표현기법이란 작품에 사용된 표현의 기술, 도구와 재료 등을 의미한다. 표현기법을 기준으로 F.I.의 표현양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F.I.는 페인팅(painting), 판화(engraving & printing), 콜라주(collage), 테크놀로지 아트(technology art) 계열의 기법을 사용한 양식 등으로 분류되었다.

(1) 페인팅 기법

페인팅 기법(technique of painting)이란, 작가가 일정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과 용매를 섞어서 벽, 판, 천, 가죽, 종이, 유리 등에 부착시켜 화면을 완성하는 일체의 경과와 기술을 말한다¹⁸⁾.

페인팅은 1910년대 이래 수많은 F.I.작가들([그림 1]~[그림 5], [그림 7], [그림 8])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어온 기법이며, 페인팅에 사용된 도구와 재료로는 포스터칼라(gouache), 수채화 물감(water color), 파스텔(pastel), 연필 및 색연필, 잉크 및 먹, 목탄 및 콘테(conté) 등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고, 70년대 이후에는 마아커(marker), 크레용 및 오일 파스텔(oil pastel), 아크릴 물감(acrylic color), 에나멜 물감, 에어브러쉬(airbrush) 등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도구와 재료들도 활용되어 왔다. 아크릴 물감을 활용한 작가로는 Canulli⁸⁾, 이순재⁹⁾, 성광숙⁹⁾을, 에나멜 물감을 사용한 F.I.작가로는 이광훈⁹⁾을, 에어브러쉬를 활용해 온 작가로는 서명자^{9),10)}를 들 수 있다.

(2) 판화 기법

판화(engraving & printing)란 나무, 금속, 돌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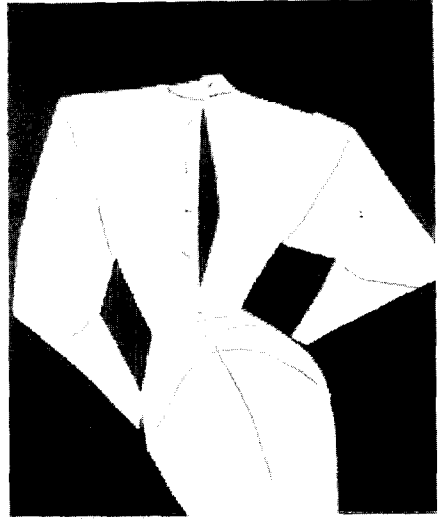
[그림 9] (Berthoud, 1986)⁸⁾

표면에 형상을 그려 넣고 판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물감을 칠해 종이, 천 등에 인쇄하는 기술이며,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원 작품의 복제가 가능한 예술장르라는 특징을 지닌다. 초기의 판화는 형상의 복제/전달의 수단으로써 활용되었으나, 사진술이 탄생한 이후에는 표현주의 예술가들에 의해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대두되어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장르이다¹⁸⁾.

판화기법은 80년대 이래 F.I.분야에 등장한 표현기법으로서 목판화와 실크스크린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판화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 F.I.작가로는 Berthoud⁸⁾[그림 9]와 Werner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Berthoud⁸⁾는 원시적 아름다움과 관능미를 작품 속에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목판화 기법을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판화기법은 회화분야 뿐 아니라 F.I.분야에서도 예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는 표현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3) 콜라주 기법

콜라주(collage)란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조각 등 다양한 재료를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회화 또는 회화기법을 의미한다¹⁸⁾. 콜라주의 종류에는 종이

[그림 10] (Gustavson, 1985)⁹⁾

류를 화면에 붙이는 방식인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 캔버스와는 이질적인 실꾸러미나 철사, 양철조각, 비닐 등의 재료 및 입체적인 물체들을 붙이는 콤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을 붙이거나 영상을 합성하여 조립된 이미지를 제작하는 포토몽타주(photo montage) 등이 있다^{18,19)}.

이러한 콜라주 기법은 Lopez^{5,10)}에 의해 F.I.작품에 도입된 후, 80년대 이래에는 두드러지게 전파되어 왔다. 콜라주 계의 표현기법 중 파피에콜레 기법을 사용해 온 F.I.작가로는 Barnes⁵⁾, Gustavson(일명 "Mats")^{7,8)}[그림 10], Donovan⁷⁾, 이주현¹⁷⁾이 있다. 이 중 Gustavson[그림 10]은 의복의 모든 디테일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점만을 강조함으로써 묘사보다는 이미지 제시에 초점을 맞춘 뛰어난 F.I.를 발표하여 왔다. 또한 Arie⁵⁾, Mouchy⁵⁾[그림 11], 남재경⁹⁾ 등은 천 조각들을 화면에 붙이므로써 의복의 재질감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 F.I.를 발표하여 왔으며, 이들의 작품에서는 콤바인페인팅 기법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Homma⁷⁾는 나무판을 화면에 붙인 후 그 위에 유머러스한 페인팅을 가미하는 F.I.작품을 제작하여 왔다. 한편 Zoltan⁸⁾[그림 12]은 사진위에 페인팅을 가미하거나 야채, 나무껍질, 과일껍질 등을 붙이는 F.I.를 제작하므로써, 포토몽타주와 콤바인 페인팅을 혼합한



[그림 11] (Mouchy, '80년대)⁵⁾



[그림 13] (1996)²²⁾



[그림 12] (Zoltan, 1986)⁸⁾

표현기법을 F.I.에 도입하였다.

(4) 테크놀로지 아트 기법

테크놀로지 아트(technologie art)란 본래 키네틱 아트(kinetic art)에서 발전한 것으로서, 1970년대 이래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만남”이라는 슬로건 하에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예술동향이다. 키네틱 아트에 복잡한 기계장치들이 동원되었던 데에 비해, 테크놀로지 아

트는 테크놀로지의 효과와 결과에 주안점을 두며, 단순하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 많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현재 테크놀로지 아트 분야의 세 가지 주류는 광원을 이용한 레이저 아트 및 홀로그래피, 컴퓨터 및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한 비디오 아트, 그리고 설치미술 계열의 작품들이다^{18,20,21)}.

이러한 테크놀로지 아트의 기법은 90년대에 들어와 F.I.에 도입되었으며, 테크놀로지 아트의 영향을 받은 F.I.작가로는 컴퓨터를 사용한 이유신⁹⁾, 전기광원을 사용한 이주현¹⁷⁾ 등이 있다. 이밖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한 F.I.는 시각디자이너들에 의해 최근 유명 브랜드의 광고²²⁾[그림 13]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F.I.작품의 외현적 표현양식의 유형과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분석하였으며, 시대적 배경이 F.I.작품의 표현매체와 기법에 미친 영향을 발견하였다.

2. F.I. 작품의 내현적 표현양식

1) 인체변형(deformation)

인체변형(deformation)이란, 대상을 시각적 영상으로 충실히 재현하지 않고 고의로 왜곡시켜 표현하는 양식을 말하며, 이는 근대에 이르러 미술에서의 사실주의가 부정됨에 따라 중요하게 부상되었다¹⁸⁾.

본 연구에서는 인체를 표현매체로 사용한 F.I.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의 인체변형을 기준으로

F.I.의 표현양식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즉 인체변형은 준사실적 표현, 단순화, 과장, 기형화 등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되었으며, 이 중 단순화/과장/기형화는 김혜자²⁾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1) 준사실적 표현

준사실적 표현[그림 4]은 50년대까지의 F.I.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어온 인체변형의 양식이며, 이 작품들에서는 사실적 비례(7등신 미만)와 이상적 비례(7~9등신)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50년대까지의 F.I.의 주목적이었던 ‘유행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¹⁰⁾ 준사실적 표현양식이 요청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 단순화

단순화는 191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F.I.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통하여 표현되면서 꾸준히 수용되었으며, 특히 80년대 이래에 급격히 부상한 인체변형 양식이다. 80년대 이래의 F.I.에 나타난 단순화의 양상을 자세히 고찰한 결과, 80년대 이래에 주로 사용된 단순화에는 ① 인체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인체보다는 화면 전체의 비례를 강조한 양식[그림 10], ② 판화 및 콜라주 등 표현기법[그림 9~11]의 특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단순화, ③ 판아트의 영향으로 인하여 의도된 단순화[그림 5] 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단순화 양식을 수용한 F.I.들이 '80년대 이래 대거 등장한 주요 배경으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F.I.의 용도가 변화한 점으로서 '50년대까지의 F.I.는 의복의 디자인을 전달하는 용도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사진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용도는 쇠퇴하고, '80년대 이래의 F.I.는 패션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켜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용도를 갖추게 되었으므로¹⁰⁾, 단순화를 통하여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F.I.가 요청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서, '60~'70년대의 미술계에서 붐이되었던 미니멀리즘이 F.I.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3) 과장

과장은 30년대의 F.I.에서 활용되었다가 쇠퇴한 후, 80년대 이래 부상된 또하나의 인체변형양식이며, 80년대 이래에는 10등신 이상의 인체 비례가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는 fashion body의 이상형은 시대정신의



[그림 14] (Avallone, 1986)⁸⁾

영향을 받아 변화해 왔으며 80년대 이래의 이상적 fashion body는 10등신 이상의 과장된 인체비례로 변모하였다고 진술한 Danielson³⁾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4) 기형화

기형화는 30년대의 초현실주의적 영향을 받은 F.I. 작품들 이후에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으나, 80년대 이래 F.I.에 다시 등장한 인체변형 양식으로 대표적 작가로는 Avallone⁷⁾[그림 14]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Jori[그림 7]의 작품 등에서는 초현실주의가 표현매체에 미친 영향이 발견되었던 반면, Avallone의 작품에서는 인체변형에 초현실주의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Perspective

F.I.뿐 아니라 모든 그림에 있어서 perspective는 작품 내 공간구성의 기본이 되며, 이 perspective를 결정하는 두 요인은 작가의 눈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가상적 기준수평선(base line)과 소실점의 수이다²³⁾. 'One-point perspective'란 작품 화면 내의 모든 선들이 한 곳으로 수렴될 때, 다시 말해 하나의 기준수평선과 하나의 소실점이 존재하는 화면내 공간구성을 가리킨다.

반면 'multi-perxpective'란 고전적 원근법을 부정한 개념으로서, 하나의 작품 화면 내에 여러 개의 기준 수평선 및 소실점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콜라주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²³⁾.

F.I. 표현양식을 perspective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F.I.의 표현양식은 one-point perspective에 의한 것[그림 4]과 multi-perspective에 의한 양식[그림 11], [그림 13]으로 분류되었다. One-point perspective 양식이 80년대까지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multi-perspective 양식은 90년대에 들어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양식의 대부분은 콜라주 계열의 표현기법을 사용한 F.I.에서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실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다원주의(pluralism) 미술 특유의 상상인 콜라주 양식이 영향을 미친 결과²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표현의 스타일

F.I.표현의 스타일이란, F.I.작가가 어떠한 시대정신 또는 문화·예술 사조의 양식을 자신의 작품속에 수용하였는가에 따른 주제표현의 양상이다. 여기에서는 각 시대의 대표적 F.I.작가들의 스타일에 시대적 배경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 1910~1920년대^{5,10)}

이 시기의 F.I.의 표현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시대적 배경 및 사조는 아르누보(Art Nouveau)운동,



[그림 15] (Rouault 1938)²⁴⁾

아르데코(Art Deco)운동, 후기 인상주의, 야수와 표현주의 등이었다. 아르누보 특유의 유연한 곡선으로 구성된 장식적 양식, 아르데코의 기하학적이며 직선적인 양식은 일본 판화 양식과 혼합되어 이 시기의 F.I.의 표현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대표적 F.I.작가 중 Dryden[그림 1], Brissaud 등은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Benito, Simon[그림 2], Lambarri, Marshall, Marty 등은 아르데코 양식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또한 Erickson(일명 "Eric"), Willaumez, Graftstrom, Mourgue 등은 야수와 표현주의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Erickson의 작품[그림 3]에서는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과 함께 야수와 표현주의 작가인 루오(Georges Rouault) 특유의 격한 터치에 의한 인간의 얼굴에 반영된 정열(예 : [그림 15])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2) 1930~1940년대^{5,10)}

F.I.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F.I.의 표현스타일에는 후기인상주의와 낭만적 표현주의, 초현실주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에 이어 이 시기까지 활동을 전개해 왔던 대표적 작가인 Erickson[그림 4], Willaumez, Graftstrom 등은 전 시대의 야수파적 스타일에서 벗어나 낭만적 표현주의 스타일의 F.I. 작품을 발표하였다. 한편 Vert, Gruau 등은 후기인상주의의 작가 로트렉(Toulouse Lautrec)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Coltellacci, de Chirico, Benito 등은 초현실주의 작가 Dali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의 작품을 전개하였다.

(3) 1950~1970년대^{5,10)}

이 시기의 F.I.의 표현스타일에는 여전히 낭만적 표현주의 스타일의 영향이 계속되었으나, 이전 시대에 비해 더욱 복합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 Bérard와 Keogh는 초현실주의가 가미된 낭만적 표현주의 스타일을, Gruau는 동양화풍이 가미된 낭만적 표현주의 스타일을 구사하였으며, Bouché는 Erickson의 후기 인상주의 및 낭만적 표현주의의 화풍을 이어받은 스타일을 전개하였다.

1960년대에는 Lopez(일명 "Antonio"; [그림 5])가 팝 아트의 영향을 받은 획기적 스타일의 F.I.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그는 콜라주적 기법을 사용하는 표현기법과 스타일로 전향하였다.

(4) 1980~1990년대^{5,10)}

1980년대 이래의 F.I.의 표현스타일에는 전례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조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Jori[그림 7], Holderness⁸⁾, Roberts⁸⁾는 초현실주의로부터, Gustavson[그림 10]와 Donovan은 야수와 표현주의 작가 마티스(Matisse)로부터, Barnes, Mouchy[그림 11], Arie, Lopez, Donovan, Zoltan[그림 12], Man, 남재경 등은 다원주의 특유의 절충적 스타일로부터, Majera⁸⁾는 극사실주의로부터, Tuveri⁷⁾, Sisto⁷⁾, Kaanias⁷⁾, Baldazzini⁷⁾, Ghini⁷⁾, Ruggeri⁷⁾, Homma⁷⁾, 성광숙⁹⁾ 등은 팝 아트 및 애니메이션(animation)으로부터, Matchavariani⁷⁾, Eula⁸⁾는 동양화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타일의 작품을 발표해왔으며, 그외에 많은 F.I.작가들이 다다이즘(Dadaism)이 후의 현대문화·예술사조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타일의 작품을 전개해왔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F.I.작품의 내현적 표현양식의 유형과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분석하였으며, 시대적 배경이 F.I.작품의 인체변형, perspective, 표현스타일 등에 미친 영향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10~1990년대에 나타난 F.I.의 표현양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F.I.의 내현적 표현양식에 있어, 표현매체에 따른 표현양식은 인체를 매체로 사용한 것/인체를 매체로 사용하지 않은 것/인체와 비인체의 혼합체를 매체로 사용한 양식으로 구분되었으며, 표현기법에 따른 표현양식은 페인팅/판화/콜라주/테크놀로지 아트의 기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양식 등으로 분류되었다. F.I.의 외현적 표현양식에 있어, 인체변형에 따른 표현양식은 준사실적 표현/단순화/과장/기형화 등으로, perspective에 따른 표현양식은 one-point perspective/multi-perspective에 의한 양식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1910~1990년대의 F.I.의 대표적 표현스타일에는 아르누보(Art Nouveau)운동/아르데코(Art Deco)운동/후기 인상주의/야수와 표현주의/낭만적 표현주의/초현실주의/팝

아트/다원주의/극사실주의 등의 현대 문화·예술사조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타일들과, 동양화/애니메이션 등 타 장르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타일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1910~1990년대에 나타난 F.I.의 표현양식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내현적 및 외현적 표현양식 모두에 걸쳐 시대에 따른 변화가 발견되었다. 특히 표현양식의 변화가 두드러졌던 시기는 1970년~1980년대로서, 이 시기를 전환기로 하여 F.I.의 내현적/외현적 표현양식은 前期와 後期の 양식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前期(1970년대 이전)의 F.I.의 지배적 표현양식을 기술하면, 인체에 착장된 의복을 one-point perspective와 페인팅기법에 의하여 준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전기의 특징적 표현스타일은 아르누보(Art Nouveau)운동/아르데코(Art Deco)운동/후기인상주의/표현주의/초현실주의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後期(1980년대 이래)의 F.I.의 지배적 표현양식을 기술하면, 인체에 착장된 의복의 표현만을 고집하는 데에서 벗어났으며 다양한 표현기법과 인체변형을 사용하였고, multi-perspective를 사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후기의 특징적 표현스타일은 다다이즘 이후의 예술사조 및 타 장르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셋째, 시대적 배경이 F.I.의 표현양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결과, 문화·예술사조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 배경은 F.I.의 내현적, 외현적 표현양식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I.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예술사조를 비롯한 시대적 양상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F.I.의 표현양식이 80년대 이래 크게 변화한 데에는, 다다이즘 이래의 현대 미술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쳐 온 점을 감안할 때에, 현대미술의 동향은 미래의 F.I.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F.I.분야의 발전과 이론적 정립을 위해서는, F.I.의 표현양식을 비롯한 F.I.분야 고유의 관점을 통하여 현대미술의 동향을 조명,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통한 자료수집을 하였으므로 연구의 자료가

제한되거나 편파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F.I.의 표현양식의 5가지 지표 외에 다른 기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F.I.의 표현양식 지표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Sloane, E., *Illustrating Fashion, revised ed.*, New York, Harpers & Row, 3, (1977)
- 2) 김혜자,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 인체 변형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 3) Danielson, D.R.,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8, No. 1, 35-48, (1989)
- 4) 박미래, *Fashion Illustration* 기초, 서울, 이룸출판, 6-7, (1992)
- 5) Barnes, C., *The Complete Guide to Fashion Illustration*, London & Sydney, Macdonald & Co Ltd, (1988)
- 6) Adams, G.R., Schvaneveldt, J., *Understanding Research Methods, 2nd ed.*, New York, Longman Publishing Group, 299-305, (1991)
- 7) Yajima, I. (editor), *Fashion Illustration in Europe*, Tokyo, Graphic-sha Publishing Co., Ltd, (1988)
- 8) Drake, N., *Fashion Illustration Today*,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0)
- 9) 금기숙 외 17인,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 18인의 작가편, 서울, 이룸출판, (1995)
- 10) 강은숙 역, Packer, W. 저. *Fashion Drawing in Vogue*, 서울, 도서출판 경춘사, (1995)
- 11) 김성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컬러링 기법, 서울, 도서출판 이룸, (1996)
- 12) 손경자,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서울, 교문사, (1995)
- 13) Stipleman, S., *Illustrating Fashion Concept to Creat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96)
- 14) Ikuta, Y. (editor), *'50s American Magazine Ads. 2. Fashion Apparel*, Tokyo, Graphic-sha, Publishing Co., Ltd., (1987)
- 15) American Vogue, Mar. 1970~May 1975, Jan. 1977~Nov. 1982, Feb. 1984~Oct. 1988, Jan. 1989~Apr. 1996
- 16) 패션투데이, 1994. 1월호~1996년 4월호.
- 17) 이주현, 제 2 회 이주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전, 서울, 갤러리 마담포라, (1996)
- 18) 계간미술 편.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 38-39, 86-89, 90-93, 117-119, 27-29, 32-37, 49-54, 40, 192-193, 215-216, 173-174, 183-186, 63, (1981)
- 19) 박주석 역, Ades, D. 저. 포토 몽타쥬, 서울, 사진신서, 30-37, (1990)
- 20) 윤난지 역, Ricky, G. 저. 키네틱 아트, 서울, 열화당, (1990)
- 21) Britt, D. (editor), *Modern Art Impressionism to Post-Modernism*,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363-365, (1989)
- 22) *Italia Vogue*, Marzo, 76-87, (1996)
- 23) Betti, C., Sale, T., *Contemporary Approach Draw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50-156, 217-218, (1980)
- 24) Le Grands Maîtres de la Peinture 16: Rouault et Le Fauvisme, Tokyo, 中央公倫社, (1973)